

영광군, 어르신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문의료·맞춤형영양도시락 퇴원환자 지원 등 촘촘한 돌봄 월 63시간 틈새돌봄 서비스도



영광군 관계자가 영광형 통합돌봄 사업으로 지역 어르신을 찾아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영광군의 특색 있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형 통합돌봄'은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보건 의료, 영양건강, 생활지원,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 유지를 돕는다.

영광형 통합돌봄 주요사업은 질병·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틈새돌봄, 방문의료, 맞춤형 영양도시락, 병원동행서비스, 퇴원환자 재가 복귀 지원, 케어플러스 봉사단 지원 등이 있다. 올해부터는 갑작스런 돌봄 공백으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한다.

월 63시간 이내 가사, 생활지원, 방문·치량교육 등 단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틈새돌봄 서비스'이다.

영광군의사회와 협력해 방문진료가 필요한 거

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방문진료와 월 2회 사회복지사 상담을 지원하는 '방문의료·돌봄지원 센터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2026년부터 전국 시행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통

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국가돌봄제도로 보호받지 못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어르신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완도군,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준비 박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지난 20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완도군 제공>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준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신우철 군수를 비롯해 완도군 실·과장, 용역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기본구상 보고와 토론,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열린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청정바다 완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해조류를 테마로, 해조류의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해조류산업의 발전을 마련했다.

특히 해조류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김이 수출 효자상품으로 떠오르는 계기도 마련했다.

완도군은 '2028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유치를 위해 사전 행사로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6년 5월 2일부터 7일까지 완도군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박람회는 해조류 이해관, 주제관, 산업관 등 4개

전시관과 국제 해조류 심포지엄, 수출상담회 등 산업형 박람회로 치러진다.

완도군은 이날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해양수산 관계 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부서별 세부 이행 과제를 검토해 반영하고 해조류산업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 지난해 김 수출액 1억 3308만 달러...전년비 71% 증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속도

목포시는 지난해 김 제품 수출액 1억3308만 달러(한화 약 2000억원)를 기록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김 수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대비 71%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사장 박홍률)를 2022년 전국 최초 해양수산부 제1호 김산업전

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김 산업 전문화의 길을 열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사업에 선정되는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2026년까지 113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 6612㎡의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하고, 김 가공 및 수출 기업을 입주시켜 연구개발과 수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식품수출단지가 완성되면 국제 마른김 거래소를 통해 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세계 마른김 시장을 개척해온 목포시의 노력이 한층 힘을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김 수출 전국 1위 결과에 대한 제1의 수산식품산업 도시로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해남 주민들이 직접 그린 관광지도 맛집·포토존 인기



해남군 화원면 주민들이 제작한 사방지도를 들여보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주민들이 관광객을 위한 추천 관광명소를 직접 손으로 그린 지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화원면 주민들이 직접 먹거리, 즐길거리, 포토존, 체험거리가 있는 곳을 발굴해 지도를 만들었다.

화원면과 주민자치위원회, 농어촌협약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한 화원면 '찜 사방지도'는 먹방편과 볼방편 2장으로, 화원면내 43개 마을 구석구석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총망라돼 있다.

먹방편 지도에는 주민들 사이 찜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을 마을별, 종류별로 구분했으며 구매 가능한 과수 농장 등을 소개했다.

볼방편에서는 화원면 대표 관광지인 오시아노관광단지, 목포구등대 등은 물론 명소와 숙박지, 체험농장 등을 다양하게 실었다.

지도는 주민들이 직접 관련 소개 그림을 그려, 지도에 재미를 더하며 화원면의 숨겨진 진면목을 생생하게 선보이고 있다.

지도 제작에는 농촌협약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발굴된 활력 디자이너 1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43개 마을을 방문해 자원을 조사하고 핵심 자원을 선정했다.

지도는 화원면 43개 마을회관과 호텔, 골프장, 식당 등에 배치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화원면 지도 제작에 이어 연차적으로 14개

전체 읍면 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화원면은 최근 오시아노관광단지 호텔 개관 등으로 관련 먹거리, 볼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주민들만이 알고 추천하는 사방지도를 제작해 기억에 남는 체험과 경험을 선물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기자 노트

신안정원수협동조합 '100평의 기적'



이상선 서부 취재본부 부국장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군민펀드 3종 연금으로 주목을 받았던 신안군이 이번엔 수목분야 사업에서 또 다른 기적을 일구었다.

신안군은 '세계 최대의 섬 국가정원' 조성 차원으로 1심 1정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묘목을 사와야 했다. 전국에서 묘목을 구매하다 보니 운송비도 부담이었고, 긴 이송시간과 섞이라는 특수환경에 어렵게 구한 묘목마저 식재 후 발육이 지연되고 고사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안을 찾아야 했다.

군이 착안한 것이 정원수협동조합을 통한 묘목의 자체 수급이었다. 같은 환경 조건에서 신속하게 옮겨 심으면 성장도 빠르고 고사율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묘목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지역의 열악한 생산 환경이 문제였다. 그래서 나온 안이 정원수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때도 박우량 군수 특유의 추진력이 발휘됐다. 박 군수는 지난 2023년 5월 전국 최초로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주민들이 이 조합에 가입하면 군에서 1명당 100평규모의 비닐하우스 시설비를 50%를 지원해주고, 조합원들은 기술지원으로 묘목을 양상하면 군에서 100% 매입해주기 때문에 단기간 안전하게 약 2500만원 상당의 순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시간과 인력, 병충해가 없어 조합원들이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면서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원수협동조합이 설립된 2023년에만 15억원의 조합원 소득과 83억원의 군 예산을 절감했다. 또 지난해는 묘목 138만 본 생산으로 총 506억원의 군 예산 절감과 총 80억원의 조합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관심이 됐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는 조합 운영 사례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고용환경 분야 최우수상과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 문화 관광 분야 대상을 받았다.

정원수협동조합이 주목받는 이유는 군 예산 절감 효과에만 있지 않다. 조합원 연령대를 낮추고 1인당 경작 가능 면적도 100평 기준으로 한정된 것도 여러 뜻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조합 출범 당시는 주민들이 조합가입에 망설이고 있었지만, 일부 조합원이 단기간에 소득을 올리자 조합원 가입 신청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 지금은 5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젊은 층에 기회를 더 주자는 의미였다. 조합원 1인당 100평 기준으로 한정된 것 역시 여러 주민이 나누어서 소득을 올리게 한다는 뜻에서다.

정부의 예산 축소 기조에서 지자체의 예산 절감과 조합원의 단기간 2500여만원 소득 창출이라는 기적을 창출해 낼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정보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힘으로 무장한 군수의 추진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고소득 창출과 500여대의 군 예산을 절감한 '100평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sslee@kwangju.co.kr

신안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총력

기저귀서 난임 시술비까지 지원

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사업은 정부형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자 외 신안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제적 부담이 가장 컸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였으나 2025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00% 지원받을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가장 먼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신안에서는 임신·출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정책들을 꾸준히 펼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이 올해도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안군은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전부 부담했으나 2025년부터는 본인부담금 90%를 군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 등이 지난 21일 목포공생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삼호 제공>

HD현대삼호, 설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에 온정

HD현대삼호는 설을 앞두고 조선포가 자리한 영암군과 목포시 소재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은누리상품과 쌀 100여 포, 생필품 등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쌀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영암 흥월마을에서 구입해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사

회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했다.

전날 목포 공생원(아동양육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한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은 "HD현대삼호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맛플무안몰' 황토고구마 30% 할인 기획전

무안군이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몰'에서 황토고구마 30% 할인 기획전을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행사기간 고구마 전 품목을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고 신규 회원에게 2천 원 쿠폰이 추가로 지급된다.

무안고구마는 게르마늄이 풍부한 붉은 황토와 해풍이 생육에 이로운 환경에서 재배돼 당도가 매

우 높고 견고해 저장성이 매우 뛰어나 전국에서 고품질 고구마로 인정받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앞으로 맛플무안몰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가치와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이번 기획전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